

# 라틀리프 vs 제퍼슨, 용병 첫 MVP?

## 바스켓볼 브레이크

라틀리프 평균 20.1점 4위·10.1R 1위  
제퍼슨 4R이후 평균 27점 11연승 주역  
국내선수는 돋보이는 MVP 후보감 없어



2014~2015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가 최종 6라운드에 돌입했다. 중·상위권 순위 다툼은 더욱 치열해졌다. 팀 성적만큼이나 개인 타이틀에도 시선이 쏠린다. 농구팬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개인 타이틀은 단연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다. 특히 올 시즌에는 외국인선수들이 강력한 MVP 후보로 떠오르고 있어 1997년 KBL 출범 이후 첫 '외국인 MVP'의 등장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 꾸준한 라틀리프-폭발적인 제퍼슨**  
가장 강력한 MVP 후보는 모비스 리카르도 라틀리프(26)와 LG 데이본 제퍼슨(29)이다. 라틀리프의 장점은 꾸준함이다. 그는 올 시즌 45경기에서 평균 20.1점(리그 4위), 10.1리바운드(리그 1위)를 올리며 모비스의 기둥으로 활약하고 있다. KBL에서 평균 20점-10리바운드가 나온 것은 2011~2012시즌(알렉산더 존슨·테렌스 레더·크리스 윌리엄스) 이후 3시즌 만이다. 더블-더블도 무려 24차례나 작성했다. 올

시즌 라틀리프보다 더블-더블을 많이 기록한 선수는 없다. 모비스 유재학 감독은 "라틀리프가 정말 열심히 뛰었다. 라틀리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팀이 선두권 경쟁을 펼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라틀리프가 꾸준함의 대명사라면 제퍼슨은 리그 최고의 폭발력을 자랑한다. 3라운드까지 평균 18.0점·8.7리바운드에 그치면서 '지난 시즌에 비해 존재감이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4라운드부터 몰라보게 달라졌다. 엄청난 득점력을 뽐내며 LG의 11연승을 이끌었다. 4라운드 이후 제퍼슨은 평균 27점을 넘는 득점력으로 '알고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제퍼슨은 "팀 고위 관계자와 코칭스태프에게서 '작년 같지 않다'는 말을 듣고 스트레스를 받았고 화가 났다. 분노를 경기로 풀고 있다"며 거침없는 입담을 과시하기도 했다.

**● 용병에 박한 표심이 관건!**  
KBL은 출범 이후 외국인선수상을 별도로 시상했지만, 2011~2012시즌부터 이를 폐지하고 외국인선수도 MVP 범주에 포함시켰다. MVP는 KBL 출입기자단 투표로 선정된다. 지난 세 시즌 동안 외국인선수는 MVP 수상에서 찬밥 신세였다. 2011~2012시즌 로드 벤슨(당시 동부), 2012~2013시즌 애런 헤인즈(SK), 지난 시즌 제퍼슨이 MVP급 활약을 펼쳤지만 MVP는 국내선수(2011~2012시즌 동부 윤호영·더블-더블도 무려 24차례나 작성했다. 올



모비스 라틀리프

LG 제퍼슨

2014시즌 LG 문태중)의 몫이었다. 올 시즌에는 국내선수 가운데 돋보이는 MVP 후보가 없다는 점이 첫 용병 MVP의 탄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양동근(모비

스), 김주성(동부) 등이 MVP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영향력 측면에선 라틀리프와 제퍼슨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 ▶1면에서 이어집니다

### ● 끝을 모르는 여자골퍼들의 열정

한화골프단은 캘리포니아 남쪽의 오렌사이드에 전용 캠프를 차렸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2채의 집을 빌려 10여명의 선수들이 합숙하고 있다. 같은 팀에 소속된 선수들이지만, 이곳에서도 경쟁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훈련 강도는 더 높아진다. 특히 스윙 훈련이 끝난 뒤 매일 바닷가에서 진행되는 10km 구보는 체력의 한계를 시험하게 만드는 지옥의 코스다. 훈련에 큰 만족감을 보이고 있는 이다솜(26)은 "솔직히 혼자 훈련하면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동료들과 함께 훈련하다보니 아무리 힘든 훈련도 극복하게 된다. 단체훈련의 긍정적 효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김다나(26·넥스)와 이정민(23·비씨카드)은 L A 인근 무어파크, 홍란(29·삼천리)과 허윤경(25·SBI)은 어바인에서 2015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챔피언스 룸'의 주인인 램버트 심 씨의 거실에는 스타들이 남기고 간 기념품들이 가득하다. 심 씨는 챔피언스 룸에서 생활했던 김대현, 노승열, 대니 리가 두고 간 골프백을 애지중지 보관하며 '가보'로 삼겠다고 했다. 아래 사진은 '챔피언스 룸'에서 생활했던 선수들이 사인한 골프백들. 샌디에이고미 캘리포니아주 | 주영로 기자

## 우승 마법 '챔피언스 룸' 있다

미국진출 골퍼들의 베이스캠프 '램버트 심씨의 집' 방에서 묵었던 허미정·최나연 등 우승해 이색 명칭

"미래의 챔피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는 '제2의 최정주'와 '제2의 박세리'를 기다리는 '챔피언스 룸'이 있다. 재미교포 램버트 심(47·한국명 심원석) 씨의 집으로, 한국의 골프 꿈나무들을 스타로 길러낸 요람과도 같은 곳이다. 심 씨의 집 1층 거실 옆에 마련된 이 방이 '챔피언스 룸'으로 된 사연은 길다.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당시 국가대표로 활동 중이던 고교생 최나연(28·SK텔레콤)과 허미정(27·하나금융그룹)이 인근에서 열린 캘러웨이 주니어골프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미국에 오면서 시작했다. 둘은 심 씨와 친분이 있던 최보양 당시 국가대표 삼비군 코치의 소개로 이 집에 머물게 됐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 했지만, 다행히 심 씨의 보살핌으로 최나연과 허미정은 불편함 없이 미국의 주니어골퍼들과 실력을 겨룰 수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심 씨의 집은 미국프로골프(PGA)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로 진출하는 선수들의 베이스캠프가 됐다. 이후 이 방에서 생활한 선수만 20명이 넘는다. 노승열(24·나이키골프), 장하나(23·비씨카드), 김인경(27), 윤재영(29·이상 한화), 홍순상(35·SK텔레콤), 김대현(27·캘러웨이), 뉴질랜드교포 대니 리(25·한국명 이진평) 등이 '챔피언스 룸'을 거쳐 갔다. 우연의 일치일까. 이 방에서 생활했던 선수들은 하나같이 우승이라는 선물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모두 한국골프를 대표하는 스타로 성장했다. '챔피언스 룸'이란 명칭이 붙은 이유다.

첫 우승의 물꼬를 튼 주인공은 허미정이다. 당시 고교생이던 그녀는 귀국 후 2개월 만에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는 소식을 전했다. 다음은 최나연이다. 아마추어로 프로대회에 출전한 그녀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해 프로 직행티켓을 따냈다. 챔피언들의 흔적도 이곳저곳에 남아있다. 거실 한편에는 '챔피언스 룸'을 거친 스타들의 사인이 담긴 골프공, 골프백, 골프클럽 등이 잘 전시돼 있다. 새로운 선수들이 이 방을 찾을 때마다 힘을 얻게 되는 상징물이 되고 있다. 심 씨는 "이 곳에서 생활했던 선수들이 모두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행복감을 느낀다. 누가됐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방을 내놓을 것"이라며 새로운 챔피언을 기다렸다.

첫 우승의 물꼬를 튼 주인공은 허미정이다. 당시 고교생이던 그녀는 귀국 후 2개월 만에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는 소식을 전했다. 다음은 최나연이다. 아마추어로 프로대회에 출전한 그녀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해 프로 직행티켓을 따냈다.

챔피언들의 흔적도 이곳저곳에 남아있다. 거실 한편에는 '챔피언스 룸'을 거친 스타들의 사인이 담긴 골프공, 골프백, 골프클럽 등이 잘 전시돼 있다. 새로운 선수들이 이 방을 찾을 때마다 힘을 얻게 되는 상징물이 되고 있다. 심 씨는 "이 곳에서 생활했던 선수들이 모두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행복감을 느낀다. 누가됐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방을 내놓을 것"이라며 새로운 챔피언을 기다렸다.

샌디에이고미 캘리포니아주 |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 이승아 부상 공백...우리은행 식스맨으로 버틴다

위성우 감독 "경기력 유지해야 강팀" 박해진 대신 기용...박연주 등 활용  
우리은행, KB스타즈전 64-83 패배



여자프로농구 통합 3연패를 노리는 우리은행은 최근 주전 가드 이승아(사진)의 부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승아는 8일 용인체육관에서 벌여

진 'KB국민은행 2014~2015 여자프로농구' 6라운드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발목을 다쳤다.

시즌 초반 이미 한 차례 발목 부상을 당해 통증을 안고 뛰던 가운데 같은 부위를 또 다치면서 부상이 악화됐다. 이승아는 약 한 달간 휴식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아의 이탈로 우리은행은 가드진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백업 가드 이은혜도 허리 부상으로 경기에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선수층이 두껍지 않은 우리은행은 정규리그 막바지 레이스를 박해진 만으로 버텨야 하는 처지가 됐다. 우리은행 위성우 감독은 슈팅가드 박해진을 포인트가드로 돌리고, 포워드 임영희에게는 슈팅가드 역할까지 맡길 계획이다. 위 감독은 "박해진이 1번(포인트가드)으로 뛰어야 할 것 같다. 박연주, 김단비와 같은 식스맨들의 기용폭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위 감독은 늘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경기력을 유지하는 팀이 진정한 강팀'이라고 강조했다. 비록 12일 KB스타즈와의 원정경기에서 64-83으로 완패했지만, 우리은행은 23승5패로 정규리그 우승 확정까지 4승만을 남겨놓고 있다.

울스타 휴식이 직전 주축 선수들의 체력저하로 한 차례 위기를 겪었던 우리은행으로선 팀의 꾸준한 경기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위 감독은 "차라리 부상이 빨라 와서 다행이다. 정규리그 막바지에는 이승아가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때까지 남은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백업 멤버들의 선전을 기대했다. 정지욱 기자

## 장충체육관 사용료...배보다 배꼽이 크네

GS칼텍스 홈 7경기 대관신청 비용 1억  
현수막·바닥코트 철거 등 추가 부담까지  
지방구단처럼 대관료 면제 등 지원 필요

V리그가 장충체육관 시대를 다시 열었다. 서울을 연고로 한 여자배구팀 GS칼텍스가 2011~2012시즌을 끝으로 구미, 팽택으로 옮겨 다니며 셋방살이를 했고 남자팀 우리캐피탈은 아산에서 러시안캐시~우리카드의 이름으로 새 동지를 트는 동안 장충체육관은 새 단장을 했다. 1042일 만인 1월 19일 GS칼텍스-도로공사 경기를 시작으로 V리그는 장충체육관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다 장충체육관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다른 스포츠 단체도 탐냈지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V리그의 손을 들어줬다. V리그는 개장기념식 때 3000만 원 어치의 물품도 후원했다. 1월 25일 울스타전을 성대하게 열며 서울 시민들에게 배구의 매력을 듬뿍 안겼다. 화려한 장충체육관 시대의 재개막이지만 그늘도 깊다.

### ● 홈 7경기를 위해 대관료 1억원을 납부한 GS칼텍스

현재 장충체육관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 재개관을 앞두고 V리그는 장충체육관의 장기임대를 추진했다. 장충체육관을 위탁 운영해왔던 회사 등 복수의 단체를 대상으로 장기임대 해준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KOVO는 장기임대 할 경우 배구 외에도 다양한 수익사업을 펼치고 유소년 배구교실과 경기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해 V리그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회라고 봤다. 연맹 사무실도 이전하겠다는 청사진까지 가졌다.

서울시는 직접 경기장을 운영하겠다고 결정했다. GS는 4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7경기 대관신청을 마쳤다. 그 비용이 무려 1억원이다. 경기장 대관료를 비롯해 주차장 사용료, 전기 난방시설 이용료, 경기 때 코트 바닥에 설치된 광고용 롤링보드와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홍보현수막의 광고 사용료, 입장료의 15%를 받는 관람사용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사용료 조례에 따라 정한 액수다. 장충체육관이 위탁 관리되던 시절에는 편의를 봐줬지만 지금은 법대로 청구해 비용이 많이 올랐다. 프로스포츠 유치를 위해 많은 혜택을 주는 지방과 비교한다면 장충체육관의 시설 사용료는 큰 부담이다. V리그 몇몇 지방구단의 경우 대관료를 내고 어떤 구단은 지자체에서 전기, 난방료 등 소비만 받고 대관료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누린다. 많은 지자체는 프로스포츠 팀을 지역 주민의 여가생활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존재로 여긴다.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경기장을 훈련장으로 개방해주는 곳도 있다. 프로스포츠를 향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은 정반대다.

GS칼텍스 김용희 사무국장은 "서울로 연고를 옮기면서 수익도 늘었지만 비용도 많이 증가했다. 여자구단으로서 한계는 있지만 해볼만하다.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활동이라 생각하고 추가비용의 부담은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담은 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 화려하지만 실속은 없는 장충체육관

사실 장충체육관은 배구전용 경기장으로 쓰기에 썩 좋은 장소는 아니다. 스포츠뿐 아니라 일반 행사도 유치하겠다는 목적으로 설계된 복합공간이기 때문이다. 코트와 스탠드의 거리가 다른 경기장보다 멀다. 야구와 달



1042일 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재개관한 장충체육관은 한국 프로배구의 성지다. 그러나 비싼 사용료와 뻣뻣한 운용은 홀로 지적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동아 DB

리 경기가 띄엄띄엄 열리는 V리그의 특성상 바닥에 설치된 고무 코트도 경기가 끝나면 철거해야 한다. 뒤이어 벌어지는 다른 행사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행사가 없어도 규정 때문에 회당 140만원을 들어서 철거해야 한다.

시설관리공단의 규정 탓에 GS칼텍스는 광고 현수막도 많이 붙이지 않는다. 광고목적의 현수막마다 일정금액을 내야하는 규정을 적용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보통 구단이 광고현찬을 받을 때 현물로 가져오는데(대부분 팬 서비스용으로 사용) 이 광고에 대해 일일이 현찰을 지불하면 손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 ● V리그 울스타전은 체육행사가 아니다?

1월 25일 벌어졌던 울스타전은 더했다. 조례에 따르면 울스타전은 체육행사가 아니었다. 그 때문에 행사를 주관한 한국배구연맹(KOVO)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 당초 관리공단은 이틀간 차량 63대가 들어가는 주차장 사용

료 500만원을 요구했다. 경기장을 장식하기 위한 13개 구단의 엠블렘도 홍보라고 판단해 상업광고 사용료를 내라고 했다. 규정은 개당 700만원이었다. 방송시스템 사용료는 물론 중계권 사용료와 입장수입 수수료도 받았다.

KOVO가 정한 울스타전 입장료는 4000만원 정도였는데 서울시에서 가져간 입장수입 수수료는 750만원이었다. 경기장 대관료와 난방 전기 사용료 등 KOVO가 이틀간의 행사를 위해 쓴 돈은 총 2500만원이었다.

결국은 프로스포츠를 어떤 시작으로 보느냐의 여부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프로스포츠인 것은 맞지만 현재 우리 프로스포츠 산업의 현실은 수익과는 거리가 있다. 프로스포츠 활동을 서울시민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나 공공재로 간주해 편의를 봐주지 않는 한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서울연고 프로팀의 주춤할 수밖에 없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트위터 @kimjongkeon